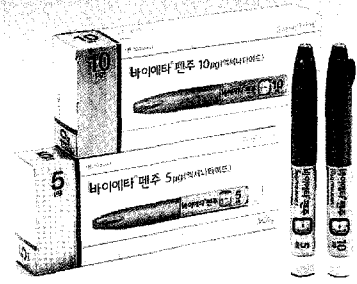


차세대 당뇨약 '바이에타'



베타세포 손상 및 비만 등 제 2형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 줄 인슐린 유사체가 개발됐다. 도마뱀의 타액성분을 합성시켜 만든 한국릴리의 '바이에타'는 엑세나타이드를 주성분으로, 인크레틴 계열 호르몬인 GLP-1과 유사한 작용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1월 출시됐다.

지속적인 혈당조절과 체중감소

베타세포를 자극해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기존의 경구용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췌장에 무리 없이 베타세포의 기능을 복구하여 지속적인 혈당 조절이 가능하다.

또한 체중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인슐린에 반해 '바이에타'는 체중을 감소시켜 당뇨병의 치료와 관리에 효과적이다.

근본적 개념의 당뇨치료약

엑세나타이드는 혈당에 따라 췌장의 베타세포로부터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글루카곤 농도가 낮을수록 간의 포도당 배출은 감소시켜 근본적으로 초기 인슐린 반응을 회복시킨다. 인슐린 분비 증가와 글루카곤 정상범위 억제효과만 하는 DPP-4 억제제보다 더 효과적이다.

인슐린 대체 약물

인슐린제제와 혈당조절 효과가 동일하여 인슐린 치료를 지연할 수 있어 인슐린 투여를 고려하기 전 대체할 수 있는 약제다.

경구혈당제 단독요법으로 혈당조절효과가 불충분할 경우 병행투여 할 수 있다.

저혈당이나 체중증가 등의 부작용이 없을 뿐 아니라 식후 혈당조절 능력이 인슐린보다 우수하다.

하루 두 번 투여하는 펜형 타입 주사제

펜형 주사제 타입으로 5µg, 10µg 두 종류가 있으며, 하루 두 번 아침 및 저녁 식사 전 1시간 전에 투여할 수 있다. 처음 시작 시 1개월 간 1일 2회 5µg 씩 투여하고 혈당조절을 더욱 개선시키기 위해 10µg 씩 증가시킬 수 있다.

부작용으로 구토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일정기간 지나면 적응된다. 